

01 교회소식

성령의 역사로 이뤄온 30년

글로벌교회로 성장한 만민중앙교회 역사는 믿음과 하나님 뜻을 이루기까지 순종하는 목자의 사랑으로 가능했다.

02 생명의 말씀

초대교회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표적, 나누는 삶, 상전에 모이기 힘쓰며 날마다 구원의 수를 더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원하십니다.

03 특집_초대교회를 본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개척 때 주신 교회 비전을 믿음으로 이뤄온 만민의 역사, 그 증언을 들어본다.

04 특집_이스라엘 선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 선교의 비전을 2007년 7월 교회 개척 25년 만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만민뉴스

제542호 2012년 7월 22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교회 개척 30주년, 믿음으로 걸어온 길

1만여 지·협력교회와 함께 세계 선교와 민족복음화를 이루는 교회

목자의 마음

오직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까지
 눈물 또 눈물의 깊은 간구
 아무도 헤아릴 수 없네
 아버지 갖고 계신
 그 근본의 사랑

많은 영혼 살리기까지
 긍휼과 애통의 사랑의 간구
 아무도 막을 수 없네

어려운 일 닦쳐도 늘 믿음의 행군
 아버지 뜻 이루기까지
 아버지께 영광 사랑의 열매
 아버지 기쁨 되네

근본의 빛으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어둠을 몰아내고 공의로 비추시네
 끝없는 아버지 사랑의 공간
 영혼들에게 펼치시네

Copyright©2009.3.4 Administered by Manmin Central Church.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대성전 조감도

우리 교회가 7월 25일 개척 30주년을 맞는다.

단돈 7천 원을 가지고 성도 13명으로 10평 남짓한 성전에서 시작한 우리 교회는 현재 전 세계에 1만여 지·협력교회를 두고 있다. 또한 GCN 방송과 다국어 신앙서적을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 사랑과 권능을 외치며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만민의 30년 역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을 만나 모든 질병을 단번에 치유받고 주의 종의 소명을

받은 이재록 목사는 교회 개척을 놓고 기도하던 중 “태양이 작열할 때 개척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1982년 7월 25일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개척 예배를 드렸다.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불같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와 성결된 자로 대성전을 이루라는 비전을 주셨다. 또한 주님 제자들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듯이 이재록 목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권능

의 역사는 부흥에 부흥을 더했다.

1990년대에는 활발한 교계 활동을 펼쳐 미국 ‘크리스천월드’지에 세계 50대 교회로 선정됐고, 2000년대 이후에는 미국, 파키스탄, 인도,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곳곳에서 수십, 수백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연합대성회를 인도했다. 특히 2009년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연합대성회를 개최해 예수만이 인류의 구세주 되심을 대대히 선포했다(관련기사 4면).

오직 순종과 사랑으로 이뤄온 만민의 30년 역사에는 감사의 열

매가 가득하다. 주님 마음을 닦기 위해 힘쓴 성도들은 급속한 영의 흐름 가운데 믿음의 반석, 영과 온 영의 열매로 나와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침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176개국을 커버하는 GCN 방송(www.gcntv.org)의 세계화를 통해 시청권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을 번역·발간하는 우림북(www.urimbooks.com), 만민국제신학교(MIS), 세계기독교사 네트워크(WCDN) 등 여러 조직을

두고 전 세계 만민에게 성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때에 사람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대성전 건축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가나안 성전을 이루며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뤄갈 것이다. 풍성한 열매로 함께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초대교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3~47)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 곳곳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도하고 주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큰 핍박 속에서도 폭발적 부흥을 이룬 초대교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물론, 전 세계를 복음화 하는 데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 이후 오늘날까지 초대교회를 본받아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1만여 자·협력교회와 함께 전 세계 만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초대교회 특징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사도행전 2:43에 보면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란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일로서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뭄 중에 비를 오게 하고 태풍의 진로를 바꾸거나 소멸시키는 일, 죽은 자를 살리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등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지요.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 불신자나 믿음이 작은 사람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학과 지식이 발달하고 죄와 불법이 성한 오늘날에는 더더욱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필요합니다(요 4:48).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성

도들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았으며, 오직 주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었지요. 더욱이 당시에는 사도들이 직접 처리했습니다.

‘사도’란 영적으로 ‘자기 의사가 없고 마음을 다해 오직 주인 뜻을 받들어 순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도’는 ‘주님 마음을 닮아 성결됨으로 주님처럼 하나님 뜻을 온전히 좇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보장을 받아 위로부터 능력을 받고 권능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각 교회를 처리하는 주의 종들이 이러한 사도의 자격을 갖춘다면 초대교회처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권능을 체험함으로 날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지요. 주의 종이 아니라 해도 스테반, 빌립 집사처럼 권능을 행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2. 사랑으로 재산과 소유를 나누는 교회

사도행전 2:44~45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했습니다. 이는 성도 간에 얼마나 영적 사랑이 풍성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피 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이기에 서로 내 것, 네 것이 없이 주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천국 소망으로 뜨거웠고 이 땅에 물질의 쌓아 두려는 욕심이 없었기에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며 모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한 형제라는 가족의식을 갖고 물질 욕심을 버리면 능히 이를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행함을 통해 그리스

History

“개척 때부터 나타난
하나님 권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조대희 목사
(2대대교구장)

저는 스물한 살의 나이에 폐결핵 3기로 사형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1983년 1월, 어머니의 등에 업혀 만민교회 금요일 야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교회 주변에 살던 친척이 하나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저를 데려간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갈 때는 들것에 실려 왔던 사람들이 나갈 때는 걸어 나가니 놀라울 수밖에 없었지요.

예배에 참석한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당시 전도사) 기도로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치료받기 위해 3일 금식을 하며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지난날 교회 다니는 동생을 핍박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무시한 일 등을 떠올리며 철저히 통회자복 했지요.

당회장님 기도를 받고 각혈 증세와 기침, 가슴 통증이 사

라졌으며 이후 건강이 회복돼 체중이 무려 20kg이나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저는 주의 종 길을 가게 됐습니다.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는 저로 하여금 자부심과 확신을 갖게 했지요.

당회장님께서는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개척 때부터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의 종을 양육하시고 구제에도 힘쓰셨습니다.

우리 교회 구제위원회에서는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환자 가정 등 수많은 가정에 매달 생활보조금과 쌀, 반찬 등 구제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으로 돕고 있지요.

주님의 증인 된 삶으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받은 후 교회 가는 것이 마냥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금반지를 하나님께 드리며 정금처럼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전도도 변함없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 가장 큰 열매는 막내 동생을 전도한 일입니다. 그 동생이 바로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이시지요. 7년간 온갖 질병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동생을 전도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온 저는 길을 모른다는 핑계로 헌신에 권사님 집회 장소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분명히 치료해 주실 거라 믿었지요.

아픈 중에도 동생은 차마 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가졌습니다. 집회 분위기로 인해 영겁결에 무릎을 꿇은 동생은 그 순간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치료받았지요. 할렐루야!

그 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만민교회를 개척했고, 30주

년을 맞은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계 1만여 자·협력교회를 가진 대형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교회 개척 전 당회장님(당시 전도사)께서는 제게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기도제물이 되어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982년 8월, 만민교회에 오게 됐고 그때부터 매일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있지요. 당시 6명으로 시작한 기도제물은 현재 170여 명으로 매일 교회와 목자,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개척 당시 우리 교회에 복한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복한이 문호를 개방하면 그때 북한으로 들어가 선교를 이룬다는 것이었지요. 그 뜻을 이를 자가 바로 제 자녀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구원의 섭리와 주님의 피 값으로 사신 영혼들을 위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길을 갈 자녀를 생각하니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와 축복의 가정으로 이끄신 주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정순 권사
(기도제물)

도의 빛과 향기를 발할 때 많은 영혼이 그 행함을 보고 주님 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과 소유를 서로 나누며 통용했다는 것은 단지 물질에만 국한된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마음을 나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상대 의견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어떤 대립이나 갈등과 분쟁이 없지요. 모든 분야에 화평을 이루는 가운데 서로 나누고 상대 형편을 돌아볼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3.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사도행전 2:46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다’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마음에 양식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늘 깨어 기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지요.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며 불같이 기도해 능력을 받으니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도하고

충성 봉사해 이 땅에서 축복받고 하늘나라에도 상급을 쌓아갔습니다.

오늘날은 많은 교회가 점점 모이기를 폐하고 있습니다. 새벽예배가 사라진 교회도 있지요. 히브리서 10:24~25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신 말씀처럼 교회는 모이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처럼 기도의 불이 항상 활활 타오르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4.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

사도행전 2:47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천국 소망이 가득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지요.

이처럼 그리스도 향기를 발하니 주변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보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향기를 발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을 보니 나도 하나님

을 믿고 싶다.” 하며 칭송하게 되지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 뜻을 좇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날마다 부흥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7:4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교회적으로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영혼의 축복, 건강이나 물질, 가정의 축복 등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만민의 역사는 오직 믿음과 순종,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정호 장로 (건축위원장)

1982년 8월, 아내 빈금선 권사의 전도로 만민교회 금요철야예배에 참석한 제계 통화자복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후 신기하게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졌지요. 또한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지금까지 기도를 쉬어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계 재정부원과 건축위원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재정을 감당하는 일이 녹록지만은 않아 늘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지요.

성전 이전도 오직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예배, 금요철야예배는 물론 수요일예배까지 성도들이 차고 넘칠 때 성전을 이전케 하셨습니다. 부흥의 속도가 빨라서 성전을 크게 건축할 시간이 없었지요.

당회장님(당시 전도사)께서는 성전을 옮길 때마다 믿음

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늘 당회장님을 보장해 주셨지요. 이러한 하나님 역사는 저희들에게도 큰 믿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척 때부터 대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붕, 성전 내부, 96개의 대리석 기둥, 천장 중앙의 십자가 모양 등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성전의 모습이 현재 주보에 나오는 조감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성전에 앞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 가나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전 성도가 하나 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닮은 자녀들이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찬양할 날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칩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이뤄 오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Surprise! 천국의 아름다움을 연상케 하는 형형색색 오로라 빛 형상 _ 지난 7월 초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 시 성도들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말·금요철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5626, 5630, 5712, 5714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
연희대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 5528, 504, 643, 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 51, 150, 505, 507, 5531, 5534, 5601, 5616, 5617, 5620, 5621, 5623, 5624, 5625, 5627, 5633, 5713, 6512, 6635, 6636, 6637, 6638, 6639, 6640, 6641, 6642, 6643, 6644, 6645, 6646, 6647, 6648, 6649, 6650, 6651, 6652, 6653, 6654, 6655, 6656, 6657, 6658, 6659, 6660, 6661, 6662, 6663, 6664, 6665, 6666, 6667, 6668, 6669, 6670, 6671, 6672, 6673, 6674, 6675, 6676, 6677, 6678, 6679, 6680, 6681, 6682, 6683, 6684, 6685, 6686, 6687, 6688, 6689, 6690, 6691, 6692, 6693, 6694, 6695, 6696, 6697, 6698, 6699, 6700, 6701, 6702, 6703, 6704, 6705, 6706, 6707, 6708, 6709, 6710, 6711, 6712, 6713, 6714, 6715, 6716, 6717, 6718, 6719, 6720, 6721, 6722, 6723, 6724, 6725, 6726, 6727, 6728, 6729, 6730, 6731, 6732, 6733, 6734, 6735, 6736, 6737, 6738, 6739, 6740, 6741, 6742, 6743, 6744, 6745, 6746, 6747, 6748, 6749, 6750, 6751, 6752, 6753, 6754, 6755, 6756, 6757, 6758, 6759, 6760, 6761, 6762, 6763, 6764, 6765, 6766, 6767, 6768, 6769, 6770, 6771, 6772, 6773, 6774, 6775, 6776, 6777, 6778, 6779, 6780, 6781, 6782, 6783, 6784, 6785, 6786, 6787, 6788, 6789, 6790, 6791, 6792, 6793, 6794, 6795, 6796, 6797, 6798, 6799, 6800, 6801, 6802, 6803, 6804, 6805, 6806, 6807, 6808, 6809, 6810, 6811, 6812, 6813, 6814, 6815, 6816, 6817, 6818, 6819, 6820, 6821, 6822, 6823, 6824, 6825, 6826, 6827, 6828, 6829, 6830, 6831, 6832, 6833, 6834, 6835, 6836, 6837, 6838, 6839, 6840, 6841, 6842, 6843, 6844, 6845, 6846, 6847, 6848, 6849, 6850, 6851, 6852, 6853, 6854, 6855, 6856, 6857, 6858, 6859, 6860, 6861, 6862, 6863, 6864, 6865, 6866, 6867, 6868, 6869, 6870, 6871, 6872, 6873, 6874, 6875, 6876, 6877, 6878, 6879, 6880, 6881, 6882, 6883, 6884, 6885, 6886, 6887, 6888, 6889, 6890, 6891, 6892, 6893, 6894, 6895, 6896, 6897, 6898, 6899, 6900, 6901, 6902, 6903, 6904, 6905, 6906, 6907, 6908, 6909, 6910, 6911, 6912, 6913, 6914, 6915, 6916, 6917, 6918, 6919, 6920, 6921, 6922, 6923, 6924, 6925, 6926, 6927, 6928, 6929, 6930, 6931, 6932, 6933, 6934, 6935, 6936, 6937, 6938, 6939, 6940, 6941, 6942, 6943, 6944, 6945, 6946, 6947, 6948, 6949, 6950, 6951, 6952, 6953, 6954, 6955, 6956, 6957, 6958, 6959, 6960, 6961, 6962, 6963, 6964, 6965, 6966, 6967, 6968, 6969, 6970, 6971, 6972, 6973, 6974, 6975, 6976, 6977, 6978, 6979, 6980, 6981, 6982, 6983, 6984, 6985, 6986, 6987, 6988, 6989, 6990, 6991, 6992, 6993, 6994, 6995, 6996, 6997, 6998, 6999, 7000

만민중앙교회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성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일주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사별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스라엘 선교 대장정



이재록 목사, 777일 간의 이스라엘 선교 시작하다

1982년 7월 25일, 만민중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민족복음화뿐 아니라 세계 선교와 대성전 건축이라는 큰 비전을 주셨다. 또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올 즈음 이스라엘을 깨우는 사역을 하게 됨을 알려 주셨다.

마침내 교회 개척 25주년 기념일인 2007년 7월 25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에서 첫 집회를 시작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북부에서 남부에 이르기까지 3년여에 걸쳐 주님의 자취를 따라 12차례 이스라엘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를 통해 현지 목회자들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에 향하신 하나님 사랑과 섭리를 깨우치게 됐다. 그 결과 이스라엘 교회 성장과 목회자 연합을 위해 마음이 뜨겁게 모아져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이라는 연합단체를 결성했다. 이스라엘 기독교계가 힘을 얻자 이재록 목사는 본격적으로 정통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전력투구했다.

예루살렘 ICC(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연합대성회



2009년 9월 6-7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중심부에 위치한 ICC(국제컨벤션센터)에서 크리스탈포럼 주최로 '2009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가 개최됐다. "GOD IS GREAT"(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성회는 이스라엘 현지인들과 전 세계 36개국에서 온 참석자들로 화려한 막을 열었다.

이재록 목사는 이틀에 걸쳐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에 대해 설교한 후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했다. 또한 환자를 위한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이 현장은 GCN 방송을 비롯해 엔라세, CNL, TBN 러시아, 디지털 콩고 등에서 생중계했고, 데이스타, 미라클 TV, HEAVEN 7 TV 등 공중파, 케이블, 위성방송을 통해 33개 TV 방송사에서 전 세계 220여 개국에 8개 언어로 방송했다. 기독교 사상 유례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연합대성회 시 권능의 기도로 이스라엘에 내린 큰 비

이재록 목사는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시 수년간 가뭄으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는 이스라엘을 위해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했다. 그 당시 크리스탈포럼 대표 다니엘 로젠 목사는 "성회 다음날인 화요일, 뉴스에서 북쪽과 이스라엘 중앙에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스라엘에서 9월에 비가 온 적은 거의 없었다. 그뿐 아니라, 일주일 뒤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로 가던 중 홍수가 난 것처럼 큰 비가 내렸다. 이재록 목사님이 기도하신 대로였다. 이 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증거이다." 라고 고백했다.

이스라엘 기상청에서 발표한 8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의 기상 자료를 보면 평년 같은 기간 강수량보다 많은 비가 내렸음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유력 일간지인 '예루살렘 포스트'지는 "한국의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 비가 오기를 기도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또한 러시아어권 기독교 최대 포털사이트인 '인빅토리아'에서도 "한국 교회 목사가 예루살렘에서 비를 위해 기도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이후 크리스탈포럼 소속 목회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교회마다 부흥을 이루고 있다. 매년 '2009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를 기념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 집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위축돼 있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활기를 찾고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현지 목회자들은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해외에서도 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이로써 회개 역사가 나타나며 질병을 치료받고 삶이 새롭게 변화됐다는 간증이 계속된다.

뿐만 아니라 이재록 목사의 저서 『깨어라 이스라엘』,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천국』 등이 다국어로 보급돼 인기를 얻고 있으며 만민국제 신학교(MIS) 과정이 텔아비브와 아쉬도트, 예루살렘에서 진행돼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TBN 러시아, CNL, 홀리갯 TV, 로드 로이 이스라엘 등 방송을 통해 매일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듣고 환자 기도를 받을 수 있다.



2009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령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전사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영로 281번지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진주만민교회 전북 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천시 영랑동 163-64 ☎033)26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강남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증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